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착수

2030 직매립 금지 대비 건립
29일 7월 마무리 용역 중간 보고회
시설규모·주민지원 등 설명

광주시가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대규모 소각장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기피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역별로 건립 희망 의견보다는 건립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회수(소각)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역은 소각

장 설치 첫 단계로 지난해 11월 시작돼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주민,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2030년 기존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시설 규모, 부지 면적, 주변 주민 지원 계획, 환경오염 물질 관리계획,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설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해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 단체가 건립을 희망하면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기피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가 공간, 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오염물질은 최소화, 에너지 활용은 극대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는 2029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해 2030년부터 가동해야 한다. 하루 600~650t 처리 용량 시설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는 3000억~4000억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순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 시설 건립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대형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나주에 있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로 일부 보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포-중국 노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코로나19로 사태로 3년간 중단됐던 김포-중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2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중국남방항공 창구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전남 농·공산품 싱가포르·말레이시아서 인기몰이

시장개척단 15개 기업 참여
201만달러 수출 계약 성과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분부는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주요국 인축제정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 국제적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수산식품 기업 9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사를 파견했다.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 환경, 시장 다양성, 낮은 진입장벽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석유·플라스틱 산업의 중심지로 중산층이 탄탄하다. 이슬람 시장 관문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훌륭한 시험 무대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중소기업 15개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천829만 달러 수출상담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특히 국내 김 전문 기업인 (주)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선 광어죽, 전복죽

생산기업인 (유)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기업인 (주)디엘티가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성공은 지역 기업의 세계 경쟁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낳아도 한명만...첫째아 비중 첫 60% 넘었다

지난해 62.7%...셋째 이상 6.8%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지난해 첫째아 비중은 62.7%이며 둘째아 비중 30.5%, 셋째 이상 비중 6.8 순이었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지 힘들어지는 의미로, 저출생 심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 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 가운데 62.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시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를 웃돌며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2021년(14만8000명)보다 5.5%(8000명) 늘었다. 2015년에 1.4%

(3000명) 증가한 이후 7년 만의 반등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000명에서 2022년 7만6000명으로 16.7%(1만5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4천명) 각각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4.4%(1만 2000명)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2%에서 6.8%로 줄었다.

첫째아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2015년부터, 셋째아 이상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하락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배경에는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점,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연합뉴스

공무원 절반 “기회 되면 이직”...인기 시들

1년전 34%서 12%P ‘경중’

박봉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이직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중앙부처 및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이 45.2%였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공무원이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직 의향 비율은 불과 1년 만에 11.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직 의사가 있다는 공무원은 2017년 28.0%, 2018년 28.1%에서 2019년 30.1%를 기록해 30%대로 올라섰고 2020년 31.1%, 2021년 33.5%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번 조사에는 기초단체 공무원까지 처음으로 포함했는데 이직 의향이 있는 기초 공무원은 46.8%로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생활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발제를 맡은 센터의 왕영민 초청연구위원은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작년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다”면서 “하는 일에 비해 박봉이라는 인식에다 민원은 늘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낮은 보수’(34.7%), ‘가치관/적성에 맞지 않아서’(14.0%), ‘과다한 업무’(13.5%) 순이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

정순신 낙마 한달 만에
경찰 내부에서 발탁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당초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지난해 24일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업나무	민업나무 가시없는 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목록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망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이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여규주·정종호)

상속신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김희원(1952.11.30.생) (deceased)
· 피후속인: 목포시 양윤성(34세, 양윤성)
· 피상속인 양 김희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공민을 중추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노614호로 인정하여 2023년 3월 27일 법원 판결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과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재판심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면 정승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27일

· 상속인: 1. 백상민(500717-XXXXXX) 목포시 양윤성(34세, 양윤성)
2. 정진광(670707-XXXXXX)
양주시 구암로142번길 20, 202동 1503호 (양윤성, 양상민(양씨))
3. 진정환(710213-XXXXXX)
평택시 조계로200번길 71-7, 402호 (양윤성, 양상민(양씨))
4. 정승환(710209-XXXXXX)
목포시 정호로 210, 107동 201호 (양윤성, 양상민(양씨))
5. 진정환(710208-XXXXXX)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300, 615동 1205호 (양윤성, 양상민(양씨))
6. 진요셉(771001-XXXXXX)
평주시 덕진구 가마로 214(약정동2가)

· 신고기간: 2023. 3. 27. ~ 2023. 6. 6.
· 재판심고장소: 상속인 1. 백상민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